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글 임선미 전주양현초등학교 교사

몇 년째 중국에서 건너오는 황사로, 우리의 호흡기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체크하며 등교한다. 2019년 신축한 전주의 양현초등학교는 이렇게 건강과 직결된 예민한 상황을 고려해 공기정화시설을 구축하는가 하면, '그린스쿨 프로젝트' 실시에 앞장서며 학교 내 공기 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

양현초, 수직정원으로 그린스쿨을 만나다

'그린스쿨 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실 특성에 맞게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을 조성하고 식물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공기 정화 및 아이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5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내 정화식물이 미세먼지 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주양현초등학교에서도 한 학급이 그린스쿨 프로젝트 대상 학급으로 선정되어 교실 내에 총 7개의 수직정원(바이오월)을 설치하였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운영되었고, 다른 반을 비교군으로 두고 생활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그린스쿨 프로젝트

그린스쿨 프로그램은 총 8차시로 구성되어 1회에 2차시를 진행하고 있다. 활동 진행은 원예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전문가가 학급 담임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한다.

공기정화식물의 이해, 식물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알아본 후, 직접 학생들이 구상한 디자인에 맞춰 수직정원을 학생 손으로 직접 꾸며보도록 하여 주인의식을 기른다. 수직정원을 관찰하고 가꾸는 과정에서 실내공기와 대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소감 발표 및 피드백 활동을 진행하며 마무리한다.

미세먼지 저감 학교, 우리는 안전지대

2020년인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린스쿨사업 신청으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4개의 수직정원을 1개 교실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설치하였다. 또한, 만성지구가 '미세먼지 안전지구'로 지정되면서, 전주양현초등학교는 지난 4월 전주시 '미세먼지 안심 학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의 정서 순화에 효과적인 그린스쿨사업을 확대하고, 교내 1~5층 건물 복도에 수직정원(바이오월) 총 26개를 조성하였다.

수직정원 조성으로 학교에서 바라는 점은, 우리 학생들이 식물과 환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학생들 주도로 공간 특성에 맞는 수직정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학교 내 환경 개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린스쿨 프로젝트로 공기정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도 초록의 싱그러움 빛으로 물들기를 바란다.

